

**시** 이돈배

### 궁수가 쏘아내린 소금화살

별비가 흐르는 밤의 비명이  
하늘을 불태우고 남긴 웅덩이에 서린다  
서기어린 사냥꾼의 숨소리

흑마는 숨 가쁜 화살을 등에 지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하늘에는  
고삐가 풀린 채 누워있는 외양간 송아지  
반인반수半人半獸 궁수가 내려다보고 있다


온기가 식어가는 순간까지 흑마는 더 나르려고  
희미해진 등불은 눈을 가물거리고  
할머니는 새벽마다 접시에 불을 켜기 시작했다

하늘을 날아 떠나온 검은 바위, 땅을 흘리고  
소금물은 날마다 흘러들어 고이고 있었다  
궁수가 쏘아내린 소금바위, 목숨은 짐 하나로  
사라져 갈 때, 지상으로 쏘아내린 궁수의 화살  
먼 시간의 전령이 되어 혼을 신고 내려온다

잠을 깨우치는 별들의 울음소리  
별의 무덤으로 저무는 밤  
백색의 미광은 산란하는 빛을 그린다  
저 파란 편린片鱗의 무한한 껍질.

**약력**

▲시인·문학평론가. 시집 '카오스의 나침반', '유형열차' 외  
▲평론집 '자연의 음성과...' '침묵의 산란. 별들이...'  
▲한국현대시작품상, 영랑문학상, 광주문학상 등  
▲광복70년 '문학미디어' 평론상, 한국문비문학(비평)상 등 수상



**동시** 윤창혁

### 다 보이는데


천둥 소리에 놀란 꿩  
덤불 속에 머리 감추고  
꼭꼭 숨었다  
영덩이 다 보이는데.

흔들리는 꽃가지에 놀란  
노랑 병아리  
개나리꽃 속으로 꼭꼭 숨었다  
빨간 발 다 보이는데.

강강 짙는 강아지에  
놀란 우리 아기  
고사리손으로 두 눈 가리고  
꼭꼭 숨었다  
온몸 다 보이는데.

**약력**

▲월간문학 등단, 한국아동문학작품상 수상  
▲광주광역시 시민대상(문학부문)심사위원 역임  
▲저서: '푸른 하늘 짙어' 동시화집 외



**시** 배순옥

### 탄생

검은 건반이 손가락 끝을 움켜쥐고 안간힘을 쓴다  
허공 속

흰 눈 같은 생명 풀어놓으니

열 손톱에 피가 낭자하다

건드릴수록


아랫도리를 휘젓는

저 울음

필사적이다

**약력**

▲1998년 월간 '문학공간' 신인상 등단  
▲광주시인협회 '2018 올해의 작품상' 수상  
▲현광주시인협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연대, 광주문인협회 회원  
▲광주시인협회, 무등문학회 회원



**<평설 및 마디> (박덕은 문학평론가)**

▲시 '탄생'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검은 건반을 의인화하고 있다. 이 건반이 손가락 끝을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허공 속에 흰 눈 같은 생명을 풀어놓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열 손톱에 피가 낭자하게 된다. 건드릴수록 아랫도리 휘젓는 울음, 필사적이다. 그만큼 탄생의 과정은 치열하고 엄숙하고 경건하다. 이 대지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에, 필사적이고 또 치열하다. 생명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시 창작 또한 필사적이다. 그만큼 현실 인식 또한 치열하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 활동에 대한 경고, 경각심, 그와 동시에 위로를 던져 주고 있는 시, 멋지다.

▲동시 '다 보이는데' 천둥소리에 놀란 꿩이 화들짝 놀라 덩굴 속에 머리를 처박고 숨어들었다. 영덩이와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병아리도 흔들리는 꽃가지에 놀라 개나리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두 발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강아지 짙는 소리에 놀란 아기가 고사리손으로 두 눈 가렸지만, 온몸은 다 보인다. 시심의 그릇에 담긴 순수, 깨끗함, 귀여움 등이 살며시 다가가 가슴에 안긴다. 잠시나마 동심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행복을 만날 수 있어 좋다. 실제로 어린 시절 매에게 잡혀가기 전에 우리 집 수탉이 두엄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다가, 노출된 몸통이 때문에 잡혀가는 모습을 마당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런 필자를 향수에 촉촉이 젖게 하는 동시라서 더욱 정겹다. 부디 동심의 세계가 우리의 순수를 자주 되찾아 주길 바란다.

▲시 '궁수가 쏘아내린 소금화살'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밤하늘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별비가 흐르는 밤, 밤의 비명이 하늘을 불태우고 남긴 웅덩이에 서린다. 또 흑마는 화살을 등에 지고 달린다. 화살을 든 궁수는 반인반수다. 궁수의 화살은 시간의 전령 되어 혼 신고 내려간다. 별들의 울음소리로 밤은 깊어 가고, 여명은 산란하는 빛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흘러 버리는 밤하늘에도 이처럼 신비로 가득하다. 마치 전설이나 신화가 흐르고 있는 듯하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시심의 눈길로 포착해내고 있는 시적 화자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눈길이 현대사회, 현대인에게 필요하다. 더 이상 삭막해지지 않도록, 시심의 눈길은 사회 구성구석을 살피고 꿰뚫고 보듬어 줘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은은히 담고 있는 시라서 더욱 사랑스럽다.

▲수필 '박꽃 예찬' 이 수필에서는 정경계도 박꽃이 등장한다. 낙안읍성 초가 위 이영 잇기 소식에 정경은 박꽃을 떠올리고 있다. 저녁 연기랑 잘 어울리는 박꽃, 어둠이 짙어갈수록 새하얗게 웃을 짓는 박꽃, 이 박꽃을 통하여 물질, 개혁, 변화, 그 체질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박꽃의 상징, 곧 한국의 꽃, 한국 여인들의 꽃을 상기시켜 놓고 있다. 흰옷, 시련 속 미소, 흐트리지 않는 매무새, 정조의 은장도, 강한 의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 어둠 밝히는 도전의 매서움, 포근한 정서, 파스한 정감, 순수와 소박함, 커다란 위안, 정감으로 주위를 밝힘 등의 사색 방울들을 자연스레 이끌어내고 있다. 박꽃에서 이러한 여러 사색, 정감, 느낌, 깨달음을 뽑아내어 독자들에게 먹음직스런 밥상을 차려 주는 작가가 참 고맙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성의 뒷밭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수필**

### 박꽃 예찬

선조들의 삶과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낙안읍성 초가에 이영 잇기가 한창이다. 전통사회에서 이영 잇기는 다가를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연중행사였다. 초가와 돌담 싸리문 등 한국의 전통적인 정취가 그대로 보존돼있는 초가 이영 잇기의 볼거리를 어느 신문에서 소개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다.

초가지붕 하면 박꽃을 잇을 수가 없다. 저녁 짓는 연기가 곱절처럼 피어오를 무렵이면 울망졸망한 초가지붕마다 하얀 미소로 박꽃이 피어났다. 어둠이 짙어 갈수록 그 어둠에 대한 반항의 몸짓이듯 더욱 새하얗게 웃을 짓던 꽃. 그러나 지금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검은색 기와에 밀려 그 모습을 찾기 어려운 박꽃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서나 피어 있는 그리움의 꽃인지도 모르겠다.

근대화라는 물결은 우리들의 생활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실질과 능률의 숭상이라는 의식의 전환도 엄청나다. 개혁과 변화의 재촉질은 우리들의 현주소가 어디인지조차도 가능하기 어려운 미궁 속을 헤매게 한다.

박꽃은 우리 한국의 꽃이다. 아니 바로 한국 여인들의 꽃이라고 해야 제격이다. 소박하고 청초하며 한껏 멋스러우면서도 매서운 절조를 잃지 않았던 옛 여인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하얗게 피어나는 박꽃의 이미지와 너무나 흡사하다.

몇천 년의 긴 역사를 이어 오게 했던 모체로서의 한국의 여인들은 흰옷처럼 소박한 심정으로 삶을 꾸려 왔다. 길으로 드러나게 꾸미지 아니하고 슬한 시련을 미소 속에 녹이면서 끈질기게, 그러나 당당하게 삶의 복판을 걸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으며 매무새 또한 흐트리지 않았다. 비록 가난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을망정 정조의 은장도는 버리지 않았다. 역사상 걸출한 인물들 길러낸 한국의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강한 의지를 지닌 분들이다. 어머니의 강한 모습은 자식들의 가슴을 강하게 만들었다. 슬하게 밀어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깔려 있는 어머니의 강한 모습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박꽃의 매서움처럼 어머니의 의지는 시련에 처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도전의 매서움, 바로 그것이었다. 박꽃이 우리를 사로잡는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한없이 젖어 들고 싶은 포근한 정서일 것이다. 격의

없이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파스한 정감이 박꽃 주위에 일렁이고 있다. 날이 서지 않는 꽃,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경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꽃,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미 오랜 친구인 양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임으로써 서로가 하나임을 느끼게 해 주는 꽃, 순수와 소박함이 빛어내는 이 하나 됨의 경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준다.

소박하고 청초하며 어둠 속에서 더욱 새하얗게 피어나는, 매서움을 지녔으면서도 한없는 정감으로 주위를 밝히는 박꽃, 비록 근대화에 밀려 보기는 어렵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씌 없이 피고 또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약력**

▲대한문학수필, 동산문학시 등단  
▲대한문학 작가회장, 광주수필문학회  
▲광주시인협회, 광주문인협회 회원  
▲대한문학상 수상  
▲수필집: '기다리는 마음', 시집: '황혼' 출간



그린알로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